수시 1학기 모집 작년보다 절반 '뚝'

91개대 1만4천여명 선발…광주·전남은 13개대 1,556명

■광주·전남 대학별 모집 인원

학 교	일반전형	특별전형
목포대	105	89
순천대	179	
광주대	57	107
광주여대	93	17
남부대	24	67
대불대	105	30
동신대		190
명신대	2	19
목포가톨릭대	13	
초당대	92	38
한려대	29	78
호남대	110	95
호남신학대	17	
소 계	826	730
합 계	1,55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학년도 수시 1학기 원서 접수가 오는 7월12일부터 21일까지 10일 동안 실시된다. 조선대 등 상당수 대학이 올해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했지만, 목포대·광주대 등 광주·전남지역 13개 대학이 올해도 수시 1학기 모집을 통해 1천556명을 선발한다. 전국적으로는 91개 대학에서 1만4천138명을 선발, 지난해 116개 대학 2만8천568명 보다 절반이 줄었다.

합격하면 더이상 지원 불가…3~4곳 소신지원 필요

수시 1학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고교 3학년 재학생의 경우 1, 2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성적만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학생은 도전해 볼 만하다.

◇광주·전남 13개 대학 1천556명 선발=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은 국립의 경우 목포대·순천대 등 2곳, 사립은 광주대·광주여대·남부대·대불대·동신대·명신대·목포가톨릭대·초당대·한려대·호남대·호남신학대 등 11곳이다.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826명, 대학별 독자적 기준을 포함한 특별전형 730명 등 모두 1천556명이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일반전형 인문계열의 경우 목포대·광주대·대불대·명신대·목포가톨릭대·초당대·한려대·호남대 등 8곳이 학생부를 100% 반영한다. 순천대·남부대는 학생부 80%, 광주여대는 학생부 60%를 각각 반영한다. 면접구술고사의 경우 순천대·광주여대·남부대·호남신학대가 각각 20% 이상 반영한다.

일반전형 자연계열의 경우 목포대·광주대·대불대·명신대·목포가톨릭대·초당대·한려대·호남대 등 8곳이 학생부 100%를, 순천대·남부대는 학생부 80%, 광주여대는 학생부 60%를 각각 반영한다. 면접구술고사의 경우 순천대·광주여대·남부대가 각각 20% 이상 반영한다.

전형 및 합격자 발표는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등록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노려라=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전형 유형을 찾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포대의 경우 실업계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89명, 광주대는 실업계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67명·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40명을 각각 선발한다. 광주여대는 어학특기자 1명·자매결연 및 산학협력기관장 추천자 3명·자격증 및 입상포상자 2명, 남부대는 자격증소지자 및 경시대회입상자 10명·학교장 및 교사 추천자 37명 등을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호남대는 학교장·교사 추천자 95명을 대학별 독자적 기준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 1학기의 경우 수시 2학기나 정시 모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참고자료가 부족한 만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 특히 대학 홈페이지는 수시로 접속해 새로운 요강이 올라와 있지 않은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

◇소신껏 지원하라=수시 1학기 모집에 일단 합격하게 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모집 시기는 물론, 산업대, 전문대에도 지원할 수 없다. 절대로 하향 안전 지원하지 말고 자신의 희망 전공 위주로 소신 지원해야 한다. 자신의 지원 조건이나 자격 등이 해당된다면 3~4개 정도 대학에 복수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시 1학기 모집에만 전력을 기울이지 말고, 수시 2학기와 정시 모집을 병행해 준비해야 하며, 학생부 관리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2008학년도의 경우 어느 때보다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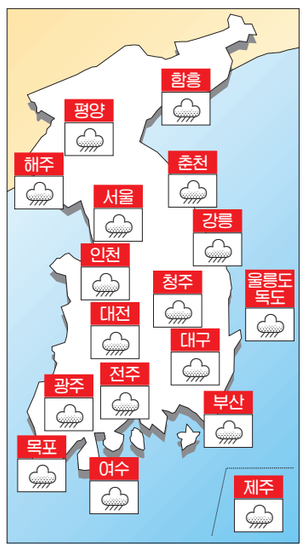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우산 꼭 챙기세요

6월 28일 (음 5월 14일) ◇전국날씨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2~27℃
목 포	흐리고 비	22~26℃
여 수	흐리고 비	21~24℃
완 도	흐리고 비	21~25℃
구 례	흐리고 비	22~28℃
해 남	흐리고 비	21~26℃
장 흥	흐리고 비	21~25℃
고 흥	흐리고 비	20~27℃
순 천	흐리고 비	21~28℃
영 광	흐리고 비	21~26℃
진 도	흐리고 비	21~25℃
전 주	흐리고 비	22~27℃
남 원	흐리고 비	21~28℃
흑산도	흐리고 비	19~23℃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5~2.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2.0~3.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00:24 11:55 썰물 06:04 17:45
여 수 밀물 07:20 20:13 썰물 01:14 13:28

▲해뜸 05:20 ▲해짐 19:51 ▲달뜸 18:06 ▲달짐 02:4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금)	30(토)	7/1(일)	2(월)	3(화)	4(수)
날 씨						
최저/최고	22/28	20/30	21/26	22/25	21/28	21/28

광주·전남 다시 장맛비

소강상태를 보이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28일 광주·전남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지역은 흐리고 낮부터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다"며 "예상강수량은 5~30㎜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서해안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돌풍현상이 발생하겠다"고 밝히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번 비는 금요일인 29일 오전 갤 것으로 보이며 이후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쯤 다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

서해안고속도 목포 방향 '조심'

사고다발지점 5곳이나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을 조심하라'

2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천583건 중 사고다발지점은 9곳으로, 3명이 죽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다발지점에서 발생한 41건 중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남해고속도로가 각각 2곳이었다.

서해안선 목포방향 327~327.3km 구간은 10건의 사고가 일어나 전국 고속도로 중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서해안선 목포방향 272.4~272.8km 구간 ▲남해선 순천 방향 137.5~137.9km 구간 ▲남해선 순천 방향 78.9~79.6km 구간 등이 각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호남선 순천방향 90.7~91.1km 구간과 166.2~166.6km 구간에서도 지난해 각각 4건과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공사 측은 "문제로 지적된 46곳에 대한 개선 작업에 5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시설 보완 등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7일 광주에서 맨 처음 문을 연 문산초등학교 '튼튼이방'. 체성분 분석기와 러닝머신 등을 갖추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산초교에 광주 첫 '영양상담실'

학생 건강 과학적 관리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영양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건강지도를 담당할 '학교 영양상담실'이 광주지역 최초로 광주시 북구 문흥동 문산초교(교장 김양임)에 마련됐다.

문산초교는 27일 오전 11시 학생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상담실'개소식을 가졌다.

'영양상담실'은 54㎡ 크기의 '튼튼이방'과 38㎡ 크기의 소회의실로 이루어졌으며 ▲어린이·성인 겸용 체성분 분석기 ▲어린이 체중조절 식단모형 ▲러닝머신 등이 갖춰져 있다.

학교 측은 '건강한 몸·밝은 미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 배양 ▲영양정보 및 지식 제공 ▲영향 불균형 진단 및 관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가정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영양 및 건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양임 교장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영양 및 건강관리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경찰 과도한 수갑 사용

대법 "신체 자유 침해"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전재환 전 금속연맹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과도한 수갑 착용으로 신체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5년 12월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아 오다 작년 2월 불심검문으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으나 담당 경찰관이 전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시간30여분 동안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신체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수갑을 포함한 경찰 장비의 사용은 구체적이고도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주 화산섬·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등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27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는 이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1차 총회에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전문가 그룹인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의 권고를 받아들여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국내 자연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명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환,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 크게 3개 자연유산으로 이뤄졌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다시 거문오름·벵뒤굴·만장굴·김녕굴·용천동굴·당처물동굴 등 기생화산(오름) 1개와 용암동굴 5개를 포함하고 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구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1%인 187.2㎢와 공유수면 1.2㎢ 등 모두 188.4㎢이다. /연합뉴스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 · 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 · 중 · 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지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 · 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 · 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더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 육 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롯데백화점앞 제일B/D 3층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신기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 · 중등학원, 태권도도장, 각 · 예능학원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아유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제1회 경찰청인증 공인자격. 10월 14일 확정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부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를 말한다. WTO가입국 중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각각 1,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정부는 당사자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뀌게 하거나 사고협상에도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청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집행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사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일부 전문가는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함)돼 신규 고용창출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참고:사고발생 약21만건, 사상자 약34만명, 이의신청분쟁 매년 수천건씩 증가,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시험과목으로는 교통관련법규 등 4과목 객관식과 실무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 · 경력과 무관하다. 특히, 일반서점에 마땅한 수험교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시자를 위한 교육원의 안내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돼 있어서, 국가공인 제1회라는 시험특성까지 감안하면 시행 첫해인 올해 유래 없이 많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탄생될 전망이다.

마무리 적중 문제풀이 특강 실시(광주)

법적 공신력 부여, 조사 자료증거 채택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취업가능

상담문의/(062)528-7788
- 자격인증기관 : 경찰청
- 시험주관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자료제공 : 교통사고감정교육원